

이동국·김신욱 제외 “상태 완전치 않다”

슈틸리케감독, 평가전 출전 명단 발표

“소속팀서 못 뛰는 선수 부르지 않겠다”
김신욱은 부상 대비 대기 명단에 포함
김보경·지동원·김은선 등 6명 새 얼굴

축구대표팀 울리 슈틸리케(61·독일) 감독이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는 선수는 부르지 않겠다”는 선발 원칙을 분명히 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17일 서울 신문로 축구 회관에서 우즈베키스탄(27일·대전), 뉴질랜드(31일·서울)와의 평가전에 나설 23명의 대표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1월 호주에서 열린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출전한 자원들이 대거 자리를 지킨 가운데 새 얼굴은 김보경(위건), 지동원(아

우크스부르크), 김은선(수원삼성), 이재성, 김기희(이상 전북현대), 윤석영(QPR) 등 6명이었다. 이근호(엘 자이시), 이명주(알 아인), 정성룡(수원) 등은 제외됐다.

●이동국·김신욱 제외, “교체 출전은 컨디션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

관심을 모았던 이동국(전북)과 김신욱(울산현대)의 대표팀 합류는 불발됐다. 슈틸리케 감독은 “K리그 클래식 2경기에서 이동국이 몇 분의 출전시간을 보장받았느냐”고 취재진에게 반문했다. 이어 “대표팀은 선택받은 선수들이 들어오는 곳이다. 지나치게 문턱이 낮아지면 안 된다”고 덧붙혔다. 이동국은 14일 FC서울과의 K리그 클래식(1부리그) 2라운드 원정경기 후반 교체로 출전해 31분을 소화했다.

김신욱은 부상선수 발생에 대비해 작성한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슈틸리케

감독은 “김신욱과 이동국은 다른 상황이다. 경기에도 모두 출전했고, 출전시간도 (상대적으로) 길었다. 하지만 계속 교체로 나온다는 것은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다. 15일 포항전에서의 골도 상대 골키퍼의 자책골에 가까웠다. 만약 공격수를 교체해야 한다면 조영철(카타르SC)이 가장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경·지동원 슈틸리케호 첫 승선, 김은선·이재성은 ‘제2의 이정협’ 노려

새 얼굴 6명 중 김기희와 윤석영은 각각 군사훈련과 부상 등의 이유로 2015호주 아시안컵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사실상 처음으로 슈틸리케 감독의 부름을 받은 선수는 김보경, 지동원, 김은선, 이재성 등 4명이다. 김보경과 지동원을 발탁한 근거 역시 소속팀에서의 활약이었다.

슈틸리케 감독은 “김보경은 카디프시티

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위건으로 이적한 뒤 주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임지를 확보했다. 지동원은 도르트문트에서 아우크스부르크로 팀을 옮긴 뒤 최근 7경기 중 6경기에 선발로 나왔다. 이들의 기량을 직접 확인하고자 선발했다”고 밝혔다.

김은선, 이재성 등 K리그의 미드필더도 눈에 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제주도 전지훈련에 소집됐던 선수들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해 부임 이후부터 유심히 지켜봤고, K리그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활약을 했다. 김은선의 수비력은 2014시즌 수원이 좋은 성적을 낸 원동력 중 하나다. 이재성은 김민우(사간 도스)를 제외하면서 그 포지션을 대체하기 위해 발탁했다. 활동량이 많고, 움직임이 좋다”고 평가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



윤정환 감독 ▶

울산, 개막 2연승 비결은 ‘허리’

마스다·하성민·제파로프 공수 연결고리 역할

윤정환 감독 “미드필드 싸움이 세계축구 흐름”



윤정환(42) 감독이 새로 부임한 울산 현대가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에서 개막 2연승을 기록하며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드러냈다. 일반적으로 팀의 수장이 바뀌면 선수들이 지도자 스타일에 적응하기까지 제법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울산은 3개월이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즌 개막 후 2경기를 모두 승리했다. 그것도 만만치 않은 FC서울과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승점 6을 챙겼다. 특히 미드필더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활약이 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윤 감독은 “미드필드 싸움이 중요시되는 게 최근 세계 축구의 흐름이다. 감독이면 누구나 이러한 사실을 잘 안다. 개인적으로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라며 “허리를 강화해야 경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어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얘기했다.

울산은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다.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은 아시아쿼터 마스다와 하성민이 담당하고 있다.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세드 스트라이커 역할을 외국 인선수 제파로프가 맡는다. 3명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특히 마스다와 하성민은 윤 감독이 가장 중요시하는 조직적인 수비력을 선보이는데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윤 감독은 “3명 모두 이전 시즌까지 기회를 많이 잡지 못했는데 원래 잘 하는 선수들이다. 믿고 기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다”며 미드필드 진영을 두텁게 하는데 공을 들였음도 공개했다.

선수 시절 천재형 미드필더로 각광받았던 윤 감독은 지도자로 변신해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허리라인을 바로 세우는 것을 제1의 과제로 삼았다. 튼튼한 허리를 앞세운 울산이 초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지 궁금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 @gtyong11



울산현대, 21일 홈경기서 박동혁 은퇴식

울산현대는 21일 전남 드래곤스와의 홈경기에서 수비수 박동혁(36)의 은퇴식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002년 전북현대에서 데뷔한 박동혁은 울산에서 2006년부터 3년 동안 주축 수비수로 활약한 뒤 2009년 일본 J리그로 이적했다. 그 후 중국 슈퍼리그를 거쳐 2013년 울산으로 복귀했고, 지난 시즌을 끝으로 13년간의 프로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동혁은 K리그에서 9시즌 동안 244경기에 출전해 22골·3도움을 기록했다.

FIFA, ‘파키스탄 vs 예멘’ 러 월드컵 1차예선 연기

국제축구연맹(FIFA)은 17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파키스탄-예멘의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1차 예선 2차전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15일 파키스탄 동부 라호르의 교회 앞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15명이 사망했다. FIFA는 아시아축구연맹(AFC)과 협의해 안전과 보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선덜랜드, 거스 포엣 감독 경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는 16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거스 포엣(48) 감독과 갈라섰다고 사실상의 경질을 발표했다. 2013년 10월 디 카니오(47) 감독에 이어 선덜랜드 지휘봉을 잡은 포엣 감독은 미카엘 라우드롭(51) 전 스완지시티 감독과의 불화로 선덜랜드 임대를 택한 기성용(26)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선덜랜드는 올 시즌 4승14무11패(승점 26)로 17위에 머물자 리그 9경기 남기고 포엣 감독을 경질하기로 결정했다. 후임으로는 딕 아드보카트(68) 전 한국대표팀 감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f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17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차례의 국가대표팀 평가전(우즈베키스탄·뉴질랜드)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트위터 @kwangshin0521

최전방 경쟁 ‘이정협·지동원’ 알고보니 먼 친척

양 부친 추자도 출신…조부시절 맺어져

2015년 한국 축구는 한 무명 선수의 ‘신데렐라 스토리’로 뜨거웠다. 1월 호주아시안컵에서 맹위를 떨친 이정협(24·상주상무)이었다. 개막을 앞두고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A매치에 데뷔해 골맛까지 본 그는 아시안컵 전 경기(6회)에 출격해 3골을 터뜨리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태극전사들이 급의환황한 뒤에도 ‘이정협 열풍’은 쉽사리 식지 않았다. 울리 슈틸리케(61·독일) 대표팀 감독이 움직이는 곳마다 이정협 이야기는 항상 빠짐없이 등장했다.

그렇게 벅찬 감동을 안긴 아시안컵이 끝난 지 2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대표팀 내에서 이정협의 입지는 여전히 확고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17일, 우즈베키스탄(27일·대전)·뉴질랜드(31일·서울)로 이어질 3월 A매치 2연전에 나설 명단을 발표하며 최전방 자원으로 이정협을 호명했다. 그런데 같은 역할을 놓고 경쟁할 파트너의 얼굴이 바뀌었다. 동갑내기 공격수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이 또 다른 공격 자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정협과 지동원이 먼 친척이라는 점이다. 화물선 선원인 이정협의 아버지 이용재(61) 씨와 지동원의 부친



이정협

지동원

지종식(56) 씨는 모두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한 추자도 출신이다. 이정협의 어머니 배필수(57) 씨는 “조부 시절 맺어진 친척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성장 과정은 달랐다. 어릴 적부터 ‘될성부른 떡잎’으로 기대를 모은 둘이었지

만 먼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쪽은 지동원이었다. 아마추어 시절은 물론 프로 입단 후에도 지동원은 항상 한 걸음 앞서 있었다. 지동원은 4년 전 카타르 대회 때 아시안컵을 먼저 경험했고, 2012런던올림픽을 거치며 유력한 ‘차세대 킬러’로 각광 받았다. 심지어 월드컵 무대도 작년 브라질 대회를 통해 이미 밟아봤다. A매치 30경기 8골이다.

현재 상황은 또 다르다. 오히려 이정협이 우위를 점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자신이 직접 선택하고 뽑은 이정협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반면 지동원은 슈틸리케 감독의 첫 부름을 받았다. 남다른 인연으로 얹힌 이정협과 지동원의 뜨거운 경쟁은 3월 A매치 시리아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간간한 경기감독관, 최강희 감독 찾은 이유는?

■현장리포트

과거 최감독 “우즈벡과 월드컵 갔으면”
우즈벡 출신 경기감독관, 감사함 전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는 아시아클럽대회 중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우승팀에는 막대한 상금과 아시아 최강이라는 자부심은 물론, 연말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출전권까지 주어진다. 물론 그만한 수고

가 필요하다. 준비과정의 만만치 않다. 특히 대회 개막 시점이 항상 정규리그와 맞물리기 때문에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출전팀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선수단 못지않게 구단 직원들도 술한 밤을 지새워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

대회 홈경기를 준비하는 모든 팀들이 똑같겠지만 전북현대는 더욱 특별한 경험을 했다. 1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빈즈영(베트남)과의 조별리그(B조) 3차전에 대비하던 전북 사무국은 내내 떠들썩했다. 이날 경기를 담당할 우즈베키스탄 출신 경기감독관(아리

포프 아림·28)이 간간하기로 평평이 난 인물

이었다. 최근 최연소 FIFA 경기감독관으로도 선임됐다. 그러나 K리그 구단 커뮤니티에선 ‘요주의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선례도 있다. 지난해 3월 포항 스틸러스와 산둥 루닝(중국)의 조별리그 3라운드 현장을 찾은 아리포프는 하나부터 열까지 지적 폭탄을 쏟아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을 여과 없이 AFC에 제출해 포항 직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야 했다.

경기감독관이 결정되자 전북 직원들은 비상이 걸렸다. 14일 새벽 아리포프가 입국한 순간부터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라운드 잔디 상태와 골대 규격 등 기본적인 경기 준비부터, 원정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까지 철저히 진행하느라 애를 먹었다. 심지어 인터뷰, 공

식훈련은 분 단위로 정확히 맞춰야 했다. 경기장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게는 증명사진이 부착된 신분증(AD카드)을 패용하도록 했다.

그래도 아리포프가 냉혈한은 아니었다. 전북 최강희 감독이 2014브라질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을 책임진 전 국가대표팀 사령탑이란 사실을 알고는 전북 구단에 최 감독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란과의 대결을 앞두고 “우리가 이란을 꺾고,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브라질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던 최 감독이 당시 남긴 한마디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하였다. 전북 관계자는 “경기감독관이 지나치게 꼼꼼한 면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규정에 의거한 요구였다. 덕택에 한 번 더 배울 수 있었다”며 밝게 웃었다. 전주 | 남정현 기자